

# 코로나 전세계 누적확진 4억명...한달새 1억명 증가

### 인구 5%, 20명에 1명꼴 감염 누적사망 578만명...증가세 완만 각국 규제 풀고 '위드 코로나' 전환

코로나19 전세계 누적 확진자가 4억명을 넘어섰다.

9일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8일 밤 10시 59분까지 전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4억17만805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 보고됐다.

이듬해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구촌을 강타한 지 2년 남짓 지난 가운데 전 세계 인구 약 79억명 가운데 약 5%, 즉 20명 중 1명 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다만 이는 각국 보건당국이 작성한 공식통계를 취합한 결과일 뿐 전문가들은 실제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달만에 1억 증가 확산세...사망자 증가세는 상대적 완만=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지난 1월 초 처음 3억명 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만에 1억 명이 추가됐다.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는 델타 등 기존 변이보다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가 처음 국제사회에 보고된 작년 11월 24일 기준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2억 6053만9106명이었었다. 그 시점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개월여만에 1억3965만여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53.6%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577만9768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8만5000명이 늘어나 5%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오미크론 대체로 후반전...미국 등 정점 지나  
◇한국은 한창=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은 지났다는 관측이 나온다.

WHO가 매주 발간하는 코로나19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확진자는 1930만명으로 전주에

비해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을 먼저 겪은 유럽 상당수 국가와 미국에서는 최근 진정세가 두드러진다.

인구 6800만명인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달 초 20만명대로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8일 보고된 지난 24시간 신규 확진자는 6만6000여명이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7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도 2주 전보다 62% 감소한 25만3780명으로 내려와 작년 12월 하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구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인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로 촉발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달 하순 정점을 찍고 가라앉은 분위기다. 지난달 21일 34만명을 넘었던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일 기준으로 6만7597명으로 줄었다.

반면, 한국, 뉴질랜드 등 오미크론 대유행을 뒤늦게 겪고 있는 대다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연일 확진자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이날 말이나 내달까 정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미크론 특성 맞춰 지구촌 속속 방역규제 완화 추진=추세적으로 볼 때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과 오미크론의 치명도가 낮아 의료 체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 현실, 높은 백신 접종률 등으로 중증화가 예방되는 효과 등과 맞물려 유럽과 미국에서는 방역 문턱을 빠르게 낮추고 있다.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는 실내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모든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전면 철폐했고,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도 자가격리 지침을 비롯한 방역 정책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로 다시 전환했다.

미국 역시 수도 워싱턴DC와 10대 주 정부를 제외한 다른 주들이 속속 마스크 의무화 해지에 동참하는 등 방역 완화 분위기가 완연하다.

2년 가까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막았던 호주도 오는 21일부터 국경을 개방한다. 역시 강경한 입국 통제로 일관하던 뉴질랜드 역시 오는 10월 완전 개방을 목표로 이날 말부터 국경을 순차적으로 연다. /연합뉴스

### 작년 美가계 빚 1조달러 늘어 2007년 이후 14년만에 최대

지난해 미국 가계부채가 1조달러(1197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연은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가계의 총부채는 15조 6000억달러로 2020년보다 1조2000억달러(7%)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폭은 1조6000억달러(1269조원)가 증가했던 2007년 이후 최대치다.

2020년 미국 가계의 총부채는 14조6000억달러였다. 뉴욕 연은은 지난해 부동산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모기치)과 자동차 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 주택 가격은 20% 가까이 상승했으며, 자동차 대출도 신차와 중고차 가격 상승 영향으로 7억 34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뉴욕 연은은 그러나 지난해 모든 계층의 수입이 증가했으며, 소비자금융 연체율도 역대 최저치 근처에서 머물고 있어 가계 부채 상황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에 평균 12%에 달했던 서비스프리미엄 모기치(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지난해 4분기 2%에 불과했다고 뉴욕 연은은 부연했다. 지난해 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여행과 엔터테인먼트 지출액이 늘어나면서 520억달러가 증가해 역대 분기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연합뉴스

### 애플 비접촉 결제기능 도입 아이폰끼리 갖다대면 계산

올 봄부터 미국 아이폰 이용자들은 매장에서 자신의 아이폰을 업주 아이폰에 갖다 대기만 하면 상품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애플이 이런 내용의 새로운 비접촉식 결제 기능인 '탭투페이'(Tap to Pay)를 도입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방송, 로이터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이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해 선보인 이 기능을 통해 아이폰끼리 갖다 대면 자동으로 지급결제가 진행된다.

그동안 NFC 결제를 하려면 별도 NFC 단말기가 있어야 했지만, 애플이 선보인 탭투페이는 하드웨어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기능은 또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등의 지급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접촉식 신용·체크카드와도 작동한다.

CNBC 방송은 애플의 새로운 기능 덕분에 아이폰이 판매정보시스템(POS·포스) 단말기로 바뀌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은 지급결제업체 스트라이프와 전자상거래업체 쇼피파이부터 우선 올 봄에 이 기능을 고객사들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자사가 누가 무엇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며, 애플페이에 사용되는 동일한 기술로 지급결제 데이터가 암호화돼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열대폭풍에 붕괴한 마다가스카르 주택 8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마닌자리에서 한 주민이 열대 폭풍 '바치라이'로 붕괴한 주택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에 불어닥친 열대 폭풍 바치라이가 전날 빠져나간 가운데 현지 재난 관리청은 열대 폭풍으로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는 앞서 2주 전에도 열대 폭풍 '아나'로 55명이 사망하고 13만1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위협 속 미국과 거리두기 안간힘

러시아 침공 위협에 맞닥뜨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경제 상황 등을 우려해 전쟁 압박 가능성을 경고하는 미국과도 거리두기에 진력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가 병력 10만여 명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북쪽과 남쪽, 동쪽 지역을 포위한 상황이지만, 위기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여

전히 신중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달 말 TV 연설에서 "2014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침입한 이후로 전쟁의 위협은 다른 어느 때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TV 연설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했다고 재차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4

년 이후 지금과 같은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전히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공개 경고가 우크라이나 국민과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

### "돼지 강제임신 멈추라" 기업사냥꾼 아이컨 맥도날드 경영진 압박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투자자 칼 아이컨이 이번엔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에 돼지 강제임신을 중단하라며 경영진 압박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이컨이 최근 맥도날드 이사회에 비공개로 위임장 체결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아이컨은 주주 이익을 끌어올리겠다며 이같은 움직임에 나섰는데, 특히 맥도날드에 돼지 사육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아이컨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어미돼지를 임신용 우리(gestation crate)라고 불리는 비좁은 쇠틀에 가둬 한쌍씩 임신, 출산, 수유를 반복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앞서 맥도날드는 2022년부터는 임신용 우리에서 나온 돼지고기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2012년 약속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컨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아이컨은 이미 맥도날드 주식을 대거 보유 중이며 최근 10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